율곡의 마음공부

왜 마음공부인가

마음이 문제다

보통 사람들은 불행한 일을 당하거나 어떤 일에 실패하거나 또는 일상적인 삶이 힘들고 괴로울 때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따지곤 한다. 대체로 가난한 부모를 만나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사회적 환경으로서 빈부 격차와 학력·남녀·장애·외모·출신 등에 따른 각종 차별과 주변 인물들의 부당한 대우 등이 그 다음이고, 본인의 잘못된 선택이나 무능력 등을 가장 나중으로 꼽는다. 사람들은 대개 남 탓을 먼저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가난한 부모를 만나고 사회적 차별을 받았던 사람들이 모두 불행한가? 그럴 가능성이 크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가난하고 불운이 닥치고 사회적으로 대우를 받지 못해도 행복하게 살았을 뿐 아니라, 인류 역사에 빛을 남긴 사람들도 있다. 우리가 잘 아는 공자孔子(기원전551~기원전479)만 해도 그렇다. 사마천司馬遷(기원전145~기

원전86)의 기록에 의하면 그는 하급 무사 출신인 70살인 아버지와 16살의 어머니의 비공식적 혼인에 의하여 태어난 인물로, 그마저도 3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가난하게 살면서 17살에 어머니를 여의었다. 그는 남의 창고지기나 가축 일을 돌보면서 꾸준히 공부하여 벼슬길에 오르고 수많은 제자를 길러내 성인으로 추앙받는 인물이 되었다.

공자의 이런 공부의 노력을 '자질구레한 낮고 쉬운 일부터 하나씩 배워 높은 경지에 올랐다'는 의미로 '하학이상달下學而上達'이라 부른다. 가난해도, 지위가 낮아도,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주변 인물이 도와주지 않아도, 스스로 배워서 무지와 무능을 극복하고 인류의 큰 스승이 된 이가 바로 공자이다. 그래서 흔히 공자를 '배워서 성인이 된 분'이라고 말한다.

여기서 공자가 외형적으로 성공한 점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의 내면세계를 상상하자고 제안해 본다. 아버지를 일찍 여읜 공자가 어머니를 따라 가난하게 살았을 때의 꿈이 어땠을까? 『논어』에 따르면 그는 열다섯 살에 배움에 뜻을 두었고 서른 살에 독립할 수 있었다고 했는데, 그 가난과 자신의 처지에 운명적으로 순응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배워야 하겠다는 생각을 품었다. 부모나 환경을 탓하지 않고 줄곧 배움에 노력하고자 했던 마음이 중요하지 않은가?

이제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게 살려면, 굳이 공자 같은 위대한 스승이나 추앙받는 위인까지 바라지 않더라도, 적어도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정신적 경지를 이룰 수 있는 공부가 필요하다. 사람들이 바라는 행복도 보통 사람들의 시선이나 기준

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공부의 성취 여하에 달려있지 않을까? 공자의 제자 안회顔回(기원전521~?)처럼 '가난도 편안하게 여기고 자기가 몸소 깨달은 도를 즐기며' 사는 안빈낙도安貧樂道도 이런 공부가 되어 있어야 가능하다. 가난하지 않다면 더 쉽지 않을까?

이제 어떠한 불행한 일이 닥치더라도 슬퍼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어떤 위협이 있어도 굴복하지 않고, 어떤 유혹이 있어도 빠져들지 않고, 칭찬이나 명예가 있어도 자만하지 않고, 부와 권력 앞에서도 꿀리지 않고, 인생을 멋있고 즐겁게 살려면 어떤 공부가 필요하다.

바로 마음이 문제다! 재산이 많을수록, 권력을 크게 가질수록, 명성이 높을수록, 인기가 많을수록 당사자는 대개 불행한 인생을 마쳤다. 그것들이 마음공부에 되레 방해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당신이 어떤 상황에 있든 제일 시급한 일은 마음공부이다. 인생을 완성할 노인에게도 필요하지만, 젊을수록 마음공부가 더 필요하다. 인생의 실패를 줄이기 위해서이다.

뜻대로 안 되는 마음

'모든 것은 오로지 마음이 지어낸다'는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라는 말이 있다. 이는 불교의 『화엄경』의 중심 사상으로서 마음의 중요성을 간파한 말인데, 거칠게 이해하면 사물을 인식하거나 일을 할 때 마음을 떠나서 아무 것도 알 수 없고 할 수 없다는 이야기이다. 달리 말하

면 '마음 밖에 사물이 없다'는 심외무물心外無物과도 통한다. 이런 말들은 얼핏 '마음'의 역할을 지나치게 과대평가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마음을 통하지 않고 사물을 인식하거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어서, 모든 일이 절대적으로 마음에 의존하고 있다는 뜻을 갖는다.

이제 이를 좀 더 현실적으로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는 실천적인 면에 적용할 수 있다. 성공과 실패도 그것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고, 낙천주의니 염세주의니 하는 것도 결국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달려 있다.

이렇게 마음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 문제는 그 마음먹기가 내 의지대로 잘 안 된다는 점이다. 정월 초하룻날 아침 '올해는 기어코 금연을 하겠다'고 다짐을 해 놓고도 그날 저녁이 되면 담배 생각이 나는 것이 보통 사람의 마음이다. 또 무엇이 바르게 사는 것인지 알면서도 눈앞에 팔자를 고칠만한 큰 이득이 나타나면 정의와 불의 사이에 갈등하기도 한다.

여기서 우리는 마음에 대한 두 가지 문제를 발견할 수 있다. 하나는 마음먹기이고 다른 하나는 마음먹은 대로 실천하는 공부가 그것이다. 마음먹기도 어렵지만 마음먹은 것을 실천하기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그래서 공부가 필요하다. 사실 어떻게 하겠다고 마음먹기가 쉬운 것 같으나 결코 그렇지 않다. 큰 재물을 보면 '저거 가져야 겠다'거나 아름다운 이성을 보면 '저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어야 겠다'는 따위의 마음먹기는 쉬워 보인다. 그러나 그것이 정당한지 따지는 문제와 나의 능력과 자질이 하고자 하는 일에 적합한지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문제는 여간 쉽지 않다. 공부하지 않고는 제대로 마음먹을 수도 없다. 마음을 잘못 먹어 실패한 사람들을 보라. 감옥에 간 사람들 대부분이 이렇게 마음을 잘못 먹은 경우이다. 감옥에 가지 않고도 마음을 잘못 먹어 실패한 사람이 또 얼마나 많은가?

게다가 마음은 잘 먹었으나 마음대로 안 되는 경우도 공부가 필요하다. 전해오는 이야기에 황진이가 몇 십 년 간 면벽 수도한 송도의 고승 지족선사를 유혹해서 넘어뜨렸다는 점은 사실여부를 떠나 마음먹은 대로 실천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음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일이다. 이렇게 마음을 잘 먹는 일과 마음먹은 대로 실천하는 일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도 아니다.

당신에게 마음공부가 왜 필요한가?

앞에서 마음을 잘 먹고 마음먹은 대로 잘 실행하기 위해서 공부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런데 여기서 무엇을 위해 마음을 먹어야 하는지 근본적 물음이 생긴다. 출세·돈·명예 등의 욕망 추구를 위해서인지, 아니면 봉사·헌신을 위해서인지 진리나 아름다움을 탐구하기 위해서인지 그 마음먹는 대상을 결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것들은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장기 과제라면, 매일 순간순간 일어나는 일, 가령 살을 빼기 위해 하루 두 끼씩만 먹거나 사귀던 사람과 헤어져 다시는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는 일 등도 마음먹기에 해당한다. 장기적인

과제든 당장의 일이든 제대로 마음먹고 마음먹은 대로 잘 실행하려면 나름의 마음공부가 필요하다. 그 것을 일단 수양修養이라고 해두자.

좀 더 거시적인 안목에서 왜 수양이 필요한지 유가儒家의 가르침을 통해 알아보자. 유교는 종교적 입장에서 표현되는 말로 공자가 이전의 문물을 정리하여 세운 가르침이다. 유학이란 학문적 입장에서, 유가란 제자백가 가운데 학파의 입장에서 각각 부르는 말이다. 유학의 목적은 '나의 몸을 닦아 남을 다스린다'는 수기치인修己治人 또는 '나의 몸을 닦아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는 수기이안백성修己以安百姓이 그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나의 몸을 닦는다'는 수기修己가 수양이다. 『대학』에서는 수신修身으로 표현하고 있다.

역사에서 춘추 전국 시대의 유자儒者는 사士 계급으로서 제후국의 통치자를 돕는 하급 관료 또는 무사 계급이었다. 곧 천자天子·제후諸侯·대부大夫·사士·서민庶民으로 이어지는 계급 순에서 대부보다 낮고 서민보다 높은 지위인데, 조선 시대 양반들을 흔히 사족士族 또는 사대부士大夫라고 일컫는 이유는 그 계급이 왕과 서민 사이에 있기 때문이었다. 높은 관리가 되면 관직명에 '○○대부'라고 붙은 것도 이런 영향이었다.

아무튼 이 수기치인의 주체가 되는 사람은 서민들을 다스리는 통치자 계급이었다. 자연히 유가도 통치자 계급에 속하기도 하지만, 그들이 섬기는 제후들을 공자의 가르침대로 설득하기 위해서 이 논리를 사용하였다. 백성들을 잘 다스리려면 다스리는 사람이 수양이 되어 있어야 한다. 윗사람이 제대로 본을 보이지 못하고 일처리도 미숙하다

면, 그의 지시나 명령이 아랫사람에게 먹히겠는가? 이런 사람이 백성들을 잘 살게 다스리겠는가? 이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원리이다.

이렇다면 수기치인은 그 옛날에만 통하던 낡은 생각일 뿐인가? 혹자는 '남을 다스린다'는 말이 거북하겠지만, 이것을 현대적 의미로 재해석해서 넓게는 정치·사회적으로 남에게 봉사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고, 좁혀서는 내 입장에서 남을 관리하는 차원으로 이해한다면 큰 무리가 없겠다. 쉽게 말해 인관 관리이다.

인간 관리를 하려고 할 때 내가 바로 서지 않는다면, 나의 말이나 행위가 상대방에게 먹히지 않는다. 부모로서, 직장의 상사로서, 학교나 사회의 선배로서 남의 리더가 되어야 할 입장은 물론이고, 그 상대편의 입장에 있을지라도 나의 의견과 생각이 남에게 먹히려면, 내가 바로 선 사람이어야 할 것이다. 아무리 내 말이 합리적이더라도 내가 그들의 신임을 받지 못하면, 내 말을 들어주는 경우가 거의 없다. 보통 사람의 판단과 행동은 이성보다 감성에 지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게다가 인간은 복잡한 삶 속에서 각종 문제와 씨름한다.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온갖 욕망·고통·수치·치욕·분노·슬픔·미움·미안함·외로움·괴로움·번뇌와 스트레스를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 이것들을 잘 조절하고 이겨내야만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다. 이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공부인데, 정작 학생들은 점수 따기 공부에만 매달린다. 분명히 말하건대 마음공부만 제대로 한다면 돈과 명예와 상관없이 인생을

주체적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당신이 나름의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반드시 마음공부를 해야 한다.

사실 그보다 마음공부가 필요한 더 큰 이유가 있다. 이는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이유로서 한 인간으로서 삶의 목적과 가치관의 실천에 관련된 문제이다. 나이 어린 사람들에게는 당장 이 문제가 가슴에 와 닿지 않겠지만,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거나 또는 삶을 바람직하게 살려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맞닥뜨리게 되는 게 마음공부이다. 마음공부를 통하여 우리는 자연과 우주와 신과 만물과 하나가 될 수 있다. 법정法頂(1932~2010) 스님도 그런 경지를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 내면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는 미처 편집되지 않은 성서聖書인 것이다. 우리들이 성서를 읽는 본질적인 의미는 아직 활자화되어있지 않은 그 말씀까지도 능히 알아듣고 그와 같이 살기 위해서가 아니겠는가?

이런 맥락에서 북송의 유학자 육구연陸九淵(1139~1193)도 "육경六經은 내 마음을 주석한 것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비록 마음의 본질을 규정하는 것이 학파나 종교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겠지만, 마음공부를 통해 마음이 도달할 수 있는 경지는 대동소이하다고 하겠다. 예컨대 서울의 북한산 정상을 바라볼 때 강북구 쪽에서 바라보든 은평구 쪽에서 바라보든 아니면 저 멀리 김포나 일산 쪽에서 바라보든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북한산 그 자체의 모습은 다르지 않는 것과 유사하다.

마음이란 무엇인가?

대중가요 가사처럼 알 듯 하다가도 모르는 게 사람의 마음이라고 한다. 심지어 '내 마음 나도 모르게'라는 노랫말도 있다. 그래서 잡으면 보존되고 놓으면 도망 가버리는 것이 마음이다. 방심이라는 말도 마음을 붙잡지 않고 놓아 버렸다는 뜻이다. 그래서 맹자孟子(기원전372?~기원전289?)는 사람들이 소나 말과 같은 가축은 놓아먹이다가 때가 되면 집으로 몰아오는데, 놓아버린 마음[본심]을 찾아오지 않는다고 나무란다. 따지고 보면 눈에 보이는 가축을 몰아오기는 쉽지만 착한 본심[양심]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온갖 욕망과 유혹과 걱정과 번민과 기대와 후회 등이 마음에 가득 차 있을 뿐만 아니라, 가축은 눈에 보이니 귀하게 여기고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 하찮게 여기기 때문이다.

이렇게 마음은 늘 복잡하다. 불교의 백팔번뇌라는 것도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번뇌의 수를 말한 것이지만, 더 따져보면 천 갈래 만 갈래가 될지도 몰라 이런 마음의 종류를 다 따지다간 세월만 낭비할 것이다. 그래서 학문과 종교와 학자에 따라 마음을 정의하는 방식이 있고, 거기에 따른 마음의 종류를 분류하기도 한다.

본서는 조선조 율곡栗谷 이이李珥(1536~1584) 선생(이하 선생으로 약칭)의 글을 주요 텍스트로 삼아 재해석하는 글이므로, 우선 선생의 학문이 기초를 두고 있는 성리학性理學에서 말하는 마음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성리학은 북송 유학자들의 이론을 발전시켜 남송의 주희朱熹(1130~1200)가 완성하였다. 그래서 일명 주자학朱子學이라고도 부른다. 성리학은 일반인들에겐 좀 생소하고 어려울 수 있는데, 본서에서 설명하는 선생의 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주 기본적인 사항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 가능한 쉽게 설명하겠다.

성리학에서 말하는 마음은 대체로 '많은 이치를 갖추어 텅 비워 신령스럽고 어둡지 않으며 만사에 응한다'고 정의한다. 우선 '많은 이치를 갖추었다'는 말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많은 이치를 마음에 갖추었다는 뜻이다. 그래서 인간의 '성품이 곧 하늘의 이치'라는 성즉리性卽理라는 논리를 내세웠고, 맹자의 성선설을 따라 성품이 착하다고 본다.

성리학에서 말하는 이치란 대체로 윤리적 원리이다. 예컨대 어버이를 공경할 줄 알고, 불쌍한 사람을 보면 측은히 여길 줄 알고, 부끄러운 사태에서 부끄러움을 알고, 남에게 사양할 줄 알고, 옳고 그름을 가릴 줄 아는 일종의 도덕 판단의 근거이다. 그러니까 인간이란 원래 도덕적 존재라는 의미와 통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그것은 또 타고난 개인의 성격 또는 그 바탕이라 할 수 있는 기질이 그런 본래의 착한 성품을 덮어 가리기 때문이다. 그 덮어 가리는 기질의 병폐를 바로잡는 일이 공부 곧 수양에 해당한다. 기질이 맑고 깨끗한 사람은 따로 수양하지 않아도 본래의 성품이 잘 발휘한다. 그런 사람은 성인이다.

그런데 본성이 원래부터 선하지만 기질이 덮어 가리기 때문에 불

선이 생긴다면, 텅 비워 신령스럽고 어둡지 않은' 마음에 어찌하여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느냐고 되물을 수 있겠다. 사실 마음은 불교에서 거울로 자주 비유하는데 선생도 그것을 인용한다. 유리 거울이 아니라 구리로 된 옛날의 거울을 상상해보라. 구리로 된 거울은 자주 닦아야 잘 비춰 보인다. 그냥 두면 시퍼렇게 녹이 슬어 거울 역할을 못한다. 거울의 본래 모습은 텅 비고 신통하게 잘 비춰주지만, 자주 닦아야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 여기서 자주 닦는 일이 수양을 상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마음은 원래 맑고 신령스러운 것이지만, 기질과 물욕이 덮어 가리어서 그렇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공부와 수양이 필요하다. 물욕 또한 기질의 병폐에서 온다.

그런데 마음에는 본성만 있는 것이 아니다. 본성은 이치이므로 동작이나 의지와 같은 물리적 힘을 갖지 못한다. 본성은 오직 정情을 통해 발현되어 현상적으로 드러난다. 이 정은 오늘날 말하는 감정도 포함하지만 꼭 그것과 일치하지는 않는다. 아무튼 본성이 정으로 발현되어 드러날 때 기질과 물욕의 영향으로 정감이 상황에 맞지 않을 때 불선이 생긴다고 한다. 그러니까 마음은 본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으로서 여러 감정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성이 정으로 드러날 때 제대로 드러나면 감정이 상황에 꼭 맞게 된다. 부모가 돌아가시면 슬프고, 자식이 잘 되면 기쁘고, 화를 내야할 때는 화를 내고, 즐거워해야 할 때는 즐거워한다. 그 반대가 되면 불선이다. 그 까닭은 물욕과 기질의 영향으로 감정이 제대로 발현되지 않기 때문이다. 가령 부모가 돌아가시면 슬픔은 고사하고 형제끼리

싸우는 집안이 있다. 상속받을 재산 욕심 때문이다.

그러니까 성리학에서는 기질의 병폐를 고치는 일이란 정당하지 않은 물욕·색욕·권세욕 등을 이기거나 제거하는 일이므로, 모두 몸과 마음에 해당하는 수양의 일이다. 앞서 말한 수기치인이 유학의 기본 목표라면, 수양의 목표는 본성으로 갖춰진 천리를 보존하고 지나친 욕망을 막는다는 존천리알인욕存天理遏人欲의 상태에 이르는 것이며, 그 방법으로서는 깨어있는 마음 자세를 유지하고 천리를 궁리한다는 거경궁리居敬窮理이다. 해당되는 항목에서 사례에 따라 쉽게 풀이할 것이다. 이런 수양론의 특징은 마음과 몸이 선하지 않는 본능과 감정과 성격과 무의식의 지배에 수동적으로 끌려가지 않고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주체성이 강한 이론이다.

이상이 성리학에서 말하는 마음과 수양에 대한 대강의 설명이다. 사실 성리학은 이보다 더 복잡한 이론 체계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불교와 도교[도가]의 영향으로 수양 이론의 철학적 근거를 제시하기 위한 것이지, 형이상학적 복잡한 이론 탐구가 주요 목적이 아니었다. 그래서 주희와 그 제자들은 『소학』이나 『근사록』 같은 책을 편찬하여 수양을 강조하였다.

선생은 이 같은 성리학 이론을 기본적으로 따르고 있어서 이 개념들을 잘 이해한다면, 선생의 설명을 쉽게 알아들을 수 있을 것이다.

율곡 마음공부의 현대적 해석 문제

선생의 많은 저술 가운데 수양론과 관련된 내용을 집중적으로 표현한 문헌은 단연코 『성학집요聖學輯要』이다. 이 책은 선생의 나이 40세 되던 해인 1575년에 저술하여 선조에게 성군聖君이 되라고 올렸다. '성군'은 성인과 같은 임금이라는 뜻인데, 곧 임금이 자신의 몸을 닦아 성인이 되어 백성을 다스리라는 뜻이다. 성인이 되어야 하니까 당연히 어떻게 수양해야 하는지 그 내용이 들어 있다. 이 책은 여러 유교 경전을 참고하여 『대학』의 체제를 따라 구성하였는데, 서문에서 수신修身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고 하였고, 선생의 말보다는 여러 경전에서 인용하는 내용이 더 많다.

아무튼 선생의 수양론은 성리학을 바탕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성리학과 선생의 주장이 현대의 다양한 학문적 관점에 얼마만큼 부합하는지 일일이 따져 보아,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실효성을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다. 곧 인간의 마음과 행동에 관련된 내용을 다루므로 철학과 각종 심리학과 뇌 과학과 의학, 인지 발달 이론, 도덕성 발달 이론, 학습 이론, 윤리학, 인류학, 생물학 등의 융·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마음은 항상 몸과 상호 작용하므로 몸의 문제도 거론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는 한두 사람이 연구하여 밝히기에는 매우 무겁고 벅찬 내용이어서 필자의 역량을 초월한다. 그렇다고 해서 선생이 남긴 글을 문자만 해석하여 동어 반복으로 전달하는 것도 본 저술의 취지에 어긋난다.

사실 더 깊은 고민은 도덕적 형이상학을 특징으로 삼는 성리학이 현대인들에게 먹히는가 하는 문제에 있다. 이런 모습은 중세 기독교 문화에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으로 기반으로 삼은 형이상학적 신의 개념을 현대의 다수 서양인들이 거부한 데서 찾아 볼 수 있다. 곧 형이상학적 유신론을 더 이상 따르지 않고, 그 문명의 중심이었던 신의 죽음과 함께 새로운 철학과 신학이 등장하였다. 이처럼 지금 우리 사회의 평범한 시민들도 전근대 사회의 주류 이념으로서 성리학이 더 이상 작동하거나 지배하지 않는 세계에 살고 있다.

그런 점에서 조선조 유학도 현대적 관점에서 재해석이 요구된다. 각종 전통철학 관련 학회에서 그것을 모색해 오고 있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해서 본서도 가능한 학문적 상식에 속하는 이론을 가지고, 해당 내용의 타당성 여부도 검토할 것이다. 선생의 마음공부가 과연 실효성이 있어서 삶을 행복하고 성공적으로 사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렇게 재해석이 요구되는 것은 시대적 배경이 다르다는 데 가장 큰 이유가 있다. 수기치인라는 유학의 목적, 『성학집요』를 선조에서 지어 올렸다는 사실, 그리고 유학이 원래 제왕학帝王學의 성격이 강하다는 측면에서 비추어 볼 때, 오늘날 일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수양의 논리에서 받아들이고 취해야 할 태도에는 분명히 거리와 차이가 존재한다. 그 가운데 하나가 사적인 욕망의 문제이다. 근대 이전의 왕에게는 사실상 사욕이 필요 없었다. 욕망의 대상이 당연히 주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왕이 사욕을 취하는 것이 아랫사람들에게 덕이 될

수 없어서, 천리를 보존하고 인욕을 막아야 했다. 반면 현대 시민의 사욕은 생존이 걸려 있는 문제여서 막아서는 안 되고 막을 수도 없다. 다만 타인의 그것을 방해하거나 침해하는 것을 경계해야 할 뿐이다. 곧 사욕은 공익과 함께 인류의 상생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다.

선생은 16세기 인물이고 우리는 21세기에 살고 있다. 인류의 인식과 과학은 당시의 천재들이 도무지 상상할 수 없도록 진보하여 왔다. 그런데도 성인의 말씀이 만고의 진리가 되는 것은 후학들에 의하여 끊임없이 재해석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래야 율곡의 마음공부도 우리에게 선물이 될 수 있다. 혹여 해석 없이 그 가르침을 문자 그대로 맹신하여 확증편향을 보인다면, 이는 종교 집단의 광신도들이나 하는 일로서 경계해야 마땅하다. 가능한 현대 학문과 시민의 입장에 어긋나지 않게 해석하여 전달하도록 하겠다.